

## 2025학년도 고3 3월 학평 문학 33번 문항 이해 10초 컷

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제는 ‘공간’문제이다. ‘시’라는 문학 갈래의 특성으로 보자면 ‘시적 상황’문제이다. ‘시적 상황’은 (화자나) (대상이) 현재 처한 상황이다. (위 표에 제시했듯 10하원칙에서의 ‘상황’은 누가/ 언제/ 어디서, 누가/ 무엇을, 누가/ 누구와/ 언제, 누가/ 무엇을 위해/ 어떻게 등으로 조합이 되는 것이다.)

화자는 지금 ㉠라는 공간에서 ㉡라는 공간 어디쯤에 있다가 ㉢라는 공간을 향해 가고 있는 (여기까지가 시적 상황) ‘배 한 척’이다.

다음 선택지 ‘㉠에서’의 ‘에서’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. 따라서 ‘㉢에서 화자는’으로 시작하는 5번 선택지는 틀렸다. 화자는 ㉢라는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. ㉢는 가고자 **목적** 하는 곳이다.

(나)

(꽃이 피면)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나도 피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해져

㉠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

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쳐내리는

그 꽃잎 안타까움의 대상 부리러\*

(이 배는) = 화자는 ㉠ 신포 어디쯤에 닿아 헤맨다 현재형 어머니 현재 그런 상황이다.

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

몸 속에 곤두서는 내버려진 봄 밖의 봄바람! 꽃피는 것을 시샘해서 피기도 전에 꽃봉오리째 떨어뜨리는 바람이니까

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

사이로 스미려다 요기쯤에 있으려다

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 떼와 문득 마주친다

(염소도) = 화자 제한 몸 (한 척 배로) 따로 띄우는 지화자인 것처럼

만경만 이랑의 파도 = 잔잔한 물결 저쪽이 포구 = 목적지, 지향점라는 듯 바닷물을 건너야 하니까 가기 힘들겠네

새끼 염소 한 마리,

지평도 뿌우연 황삭길 힘든 길 타박거리며 간다 그래서 나도

마음은 결가지로 펠럭거리며 덜 핀 꽃나무

둘레에서 멈칫거리자고 하지만

(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) 내적 갈등 아지랑이 너머

끝내 닿을 수 없는 ㉢ 항구 몇 개는 = 지향점, 이상향, 목적지 더 지워야 한다 (생각, 의지)고

(달이 꿇긴 배 한 척.) = 화자 <-- 힘표는 화자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, 여전히 헤메고 있다는 의미

- 김명인, 「봄길」 -

\* 부리러: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러.

33. ㉠~㉢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5

- ① ㉠에서 화자는 ‘꽃이 피’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.
- ② ㉡에서 ‘건너기’의 힘들음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㉢로 향한다.

- ③ ㉞에서 화자는 '거기'에 부는 '꽃샘바람'을 '몸 속'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.
- ④ '마음'과 '상심' 사이에서 번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㉞와 ㉟ 사이에 놓인 '달이 끊긴 배 한 척'으로 인식한다.
- ⑤ (㉟에서)X (화자는) 자신의 목적지를 '끝내 닿을 수 없는' 곳이라고 인식한다.

화자는 '끝내 닿을 수 없는'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㉟를 향해 가고 있는 '달이 끊긴 배 한 척'이다. '이상향'은 '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'이라서 그 단어 자체에 이미 '닿을 수 없는'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. 닿았다면 이미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니까. 그런데 인간은 이상향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그곳으로 향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이다. 그래서 '달이 끊긴 배 한 척' 다음에 찍힌 십표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.

모든 시를 해석할 때, 제일 먼저 보는 것은 '제목'이다. '제목'은 주제 의식의 상징이거나 주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. 제목 '봄길'은 (시간과) (공간이) 모두 제시된 제목이다.

그다음은 '주제 파악하기'이다. 시의 주제는 '시적 상황에 대한 / 화자의 정서나 태도, 생각, 소망, 추구하는 것'이다.

이 시에서 '시적 상황'을 파악해 보자. 시적 상황은 대부분 시 앞부분에 제시되며, 6하원칙에 따라 이해하면 된다. 이 시에서 (화자는)누가 (㉞김제 본들)어디서 건너기가 힘들어서 (㉞신포 어디쯤)어디서에서 헤맨다고 했다. 여기까지가 '시적 상황'이다.

그럼 이제 화자의 (정서 및 태도, 생각, 소망, 추구하는 바)를 보자. 마음 한 켠에서는 덜 핀 꽃나무 돌레에서 그냥 멈칫거리자고 하지만,(정서) 남몰래 드는 상심의 내용은 가고자 하는 곳이 '끝내 닿을 수 없'다는 것이다.(정서) (←→ 따라서 내면 갈등)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'달이 끊긴 배 한 척'인 자신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.(태도)

이제 '교육청 해설지'를 보자. ㉟는 '아지랑이 너머'에 있는 곳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다. (㉟에서) (화자가) 자신의 목적지를 '끝내 닿을 수 없는 곳'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㉟자체를 '끝내 닿을 수 없는 곳'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.

좀 불친절한 해설이기는 하다.^^;

'시'를 역수로 많이 읽어서 그 이해력을 넓히자면 얼마만큼의 시를 읽어야 할까? 수능에서 '시'의 내용은 시 전반부에 제시된 '시적 상황'과 시 후반부에 제시된 '화자의 정서, 태도, 생각', 그리고 <보기>. 더 나아가 '시어의 의미 파악' 문제의 옳은 진술 선택지를 참고해서 읽으면 된다. 적어도 문제를 풀 만큼의 해석은 된다. 그 이상의 개인적 감상은 시험 '밖'에서 할 일이다.

**수능 국어 출제요소는**  
**주체, 대상, 시간, 공간, 원인(과거), 목적(미래), 수단·방법 : 6+1하원칙**  
**조건, 기준, 관계**  
**< 10하원칙 >**